

제1699호(17-48) 2017년 12월 11일

북한 화성-15형 시험발사의 함의와 전망

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중구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본고는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성급히 발표한 배경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화성-15형 시험발사가 가져 올 함의를 핵보유국 지위의 추구, 경제제재 국면에서의 대처, 핵·미사일 개발 의지의 측면에서 파악했다. 이로부터 화성-15형 시험발사로金正은이 공언한 국가핵무력 완성의 목표를 충족시킨 것으로 상정한 북한은 향후 핵보유국 인정과 경제제재 완화와 같은 대외적 목표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경제제재의 완화를 위해 핵실험 모라토리엄 발표 등을 통한 핵군축 공세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제재효과를 줄인 북한은 내년 공화국 창건 70주년을 전후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대형 ICBM급 미사일의 시험발사로 핵보유국 인정을 얻어내고자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대북 핵억제 능력을 차분히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본격화될 대외적 목표 추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준비해야 할 때다. 이러한 준비 가운데, 유엔총회에서 제시된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에 기초한 선제적 남북 군사회담 제안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 11월 29일 화성-15형 시험발사 직후 국가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실현했다고 선언했다

다.¹⁾ 9월 15일 화성-14형 발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파괴 경고와 전략자산의 공세적 전개에 숨을

죽이면서,²⁾ 전략도발을 멈춘 지 75일만의 일이다.

그러나 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은 북한 스스로 핵능력을 확신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 같지 않다. 화성-15형이 ICBM 개발의 관건인 재진입 기술의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7월에 시험발사되었던 화성-14형도 정상각도 발사 시 사거리가 1만 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ICBM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진입체 기술이 불확실했기 때문이었다. 고각 발사된 금번 화성-15형 시험발사도 화성-14형처럼 최대사거리 궤도로의 낙하 시 재진입 능력이 실증되지 못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29일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김정은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발표한 이상 북한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에 도달했다고 서둘러 발표한 배경에는 ‘위기의 사다리’에서 내려올 가능성⁴⁾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성-15형 시험발사 배경

북한이 두 달 여의 침묵을 깨고 화성-15형을 발사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은이 제시한 국가핵무력 완성을 빠른 시간 내에 과시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단계”에 있다고 공언했고, 9월의 6차 핵실험 직후에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의 마지막 단계”를 직접 언급했었다.⁵⁾ 9월 15일 화성-12형 정각발사를 현지

지도 하며 김정은은 “무제한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국가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ICBM 완성을 호언장담했다. 핵무력 완성이 임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온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직후, 정부 성명을 통해 김정은이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의 대업”을 실현했다고 강조함으로써, 김정은이 공언해 온 국가핵무력 완성 목표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대내외에 보여주고자 한 측면이 크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이 “기본적으로 세계 어디든(everywhere in the world basically)” 타격할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듯이, 북한은 1단 추진체에 화성-14형 엔진 2개를 사용하여 보다 강화된 추력으로 미사일 사거리의 진전을 과시했다.⁶⁾

비록 기술적 평가에 대한 의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기들 기준에 따라 “핵무력 완성”을 발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평가는 “실험-유효성-인정”의 수순으로 진행되는데, 북한은 “실험” 단계에서 바로 “인정”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외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주장에 대해 기술적 유효성을 의문시하는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 화성-14·15형 발사 시 북한의 재진입체 기술 확보 주장과 그에 대한 국제적 반박이 대표적인 예이다.⁷⁾

특기할 것은 화성-15형의 시험발사가 북한 국내적으로는 핵무력 완성이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폭탄 부분에서는 수소탄을, 미사일 부분에서는 도로이동식 ICBM을 갖게 되면 자신들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었다. 이 점에서, 화성-15형을 9축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바로 시

험발사한 것은 그들이 목표한 ‘도로이동식 ICBM’의 개발을 달성한 것으로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화성-15형 시험발사 현지지도 기사는 김정은이 현장에서 9축 이동식 발사대를 먼저 살펴보았으며, 화성-15형의 기동성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동식 ICBM 개발을 미사일 부분의 최종 목표로 추구해 온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계획의 맥락에서, 화성-15형은 “우리가 목표한 로켓무기체계의 완결 단계에 도달한” 무기라고 강조될 수 있었던 것이다.⁸⁾

둘째, 화성-15형의 발사배경으로 주목되는 것은 최근의 국제제재 강화 동향이다. 다시 말해, 금번 화성-15형 시험발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효과를 북한 주민들이 인지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과 맥이 닿아 있다. 북한은 9월 11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2375호에 대해 화성-12형 2차 정각발사를 통해 강력히 반발하며, 대북제재의 파장 극복을 위해 7기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방법으로 대북제재의 영향을 극복한다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다.⁹⁾ 그러나, 지난 11월 중순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 특사 방북 시 중국의 도발 중단 요구에 김정은의 화답이 없자, 중국은 북경-평양 항공편 중단 조치를 통해 무언의 압박을 가하며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미 재무부는 그 후속조치로 북한의 해상운송망과 선박, 그리고 북·중 무역 관련 주요 중국기업에 제재를 부과했다.¹⁰⁾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의 화성-15형 발사를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을 빨리 선언하고 지난 해 7차 당대회 때 발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이행에 집중할 수 있다는 병진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 측면이 크다. 즉, 화성-15형 발사에는 자력자강과 과학기

술로 대북제재를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대내적 메시지가 담긴 셈이다. 자강력과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로 제재국면하에서도 “핵·경제 병진정책의 지름길→과학기술 정책 중시→핵무력 완성”의 수순을 제시했고, 이는 화성-15형 발사를 가능하게 한 것과 동일한 수순으로 경제부문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의미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셈법은 화성-15형 발사 다음날 노동신문이 사설을 통해 ‘핵무력 완성’ 축하와 더불어 경제전선에서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겠다는 목표를 강조¹¹⁾한 점에 잘 나타나 있다.

셋째, 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가 북한의 자력자강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과시하며, 향후 핵의 “질량적 증대”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자신의 과학기술중시 정책으로 자체 스케줄과 핵능력 강화 구상대로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비롯한 미 재무부의 신규 대북 제재,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등은 자신에게 효과가 없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는 한편, 핵능력을 꾸준히 증대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화성-15형을 발사한 이동식 발사대를 “100% 국산화, 주체화”된 것으로 강조한 데 주목해야 한다.¹²⁾ 이것은 제재 국면하에서도 핵·미사일의 개발과 생산이 계속될 수 있다는 주장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책 방향과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배경과 의도를 연계시켜 볼 때, 화성-15형 발사 이후 북한이 어떠한 행태를 보일 것인가는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통한 ‘핵보유 국가’에서 다종화된 핵능력을 갖춘 ‘핵무력 국가’로 정책 기조를 옮겨가고자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핵강국이 되면 미국이 타협해 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¹³⁾ 핵무력 국가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대화를 시작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안보적 수단 혹은 경제적 수단을 넘어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필경 2016년 7월 7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참고로 할 때, 선(先) 평화협정 요구를 전면에 내세울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의 공존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북한에 대한 핵포기 압력과 그에 따른 대북제재 국면은 보다 강화되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맥매스터 NSC 보좌관은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대해 전쟁 가능성이 증대되었다고 밝혔고,¹⁴⁾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 역시 “핵국가 인정 문제를 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⁵⁾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의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대해 중국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그리고 유엔 회원국에게는 해상봉쇄를 요구하는 등 북한을 한층 더 옥죄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한다. 한편, 북한도 미국의 이러한 정책 방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최근 북·미 협상 의사를 시사하면서도 국제 제재 하에서 100년도 더 살 수 있다고¹⁶⁾ 맞받아치고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핵국가 인정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전쟁과 대화 어느 쪽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되,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완화시키고자 주변국 및 유엔을 통해 북·미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둘째, 화성-15형의 시험발사로 북한이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발표한 이상 기존의 핵·미사일 집중의 “One way”에서 향후 “Two ways”로의 정책전환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직접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경제문제에 집중하는 정책을 가시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 더욱이 대북제재 효과가 금년 후반부터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2017년처럼 일방적으로 핵·미사일 시험발사에만 집중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다. 자력자강을 내세우며 속도전을 통해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미국의 해상차단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북한의 경제안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금년 5월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자, 북한은 행선지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제3국에서 원유를 수입하고자 노력해 온 걸 보면,¹⁷⁾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원유공급 제한조치가 시행되고 그들의 주된 제재회피 수단인 해상운송이 원천 차단될 경우, 북한이 입을 타격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경제행보를 가시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면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평화-평창”을 내세우는 평창 올림픽 기간은 “북한 도발중단-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요구를 북한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핵보유국 인정’ 외에 또 다른 대외적 목표인 ‘대북제재 해제’에 집중해야 하므로,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선전하면서 평화공세를 펴고자 할 것이다. 그 중 하나로 북한은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미국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북·미 대화 입구조치로 내세우며 핵군축을 제의해 올 수 있다.** 북한이 정부성명에서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이라고 언급한 점은 핵실험 모라토리엄 등 핵군축 공세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¹⁸⁾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R-7) 발사 이후 ICBM 배치 시점 사이의 시기인 1957~1958년간 핵군축 3원칙과 핵실험의 일방적 동결 조치 등을 발표하며 평화공세를 진행했던 것처럼, 북한도 국면전환을 위해 일정 기간 평화공세를 펴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의도를 갖고 2018년 신년사에 핵국가 완성 이후의 수순에 대한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로 ICBM급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능력과 사거리 증대 등 기술적 진전을 보여주었으나, 미국에 대한 핵보복 능력을 완전히 갖췄다고 하기 어렵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재진입체의 정확도 문제는 물론, ICBM급 미사일의 미사일방어체계(MD) 돌파 능력과 생존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따라서 북한은 지난 9월 리용호 외무상의 태평양상 수소탄 실험 언급에서처럼 대기권 핵실험 가능성이나, 미국의 MD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다탄두 체계의 개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¹⁹⁾ 더욱이 북한은 핵보복 능력을 갖추기 위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강도 내에서 연료를 주입함으로써 액체연료 ICBM급 미사일의 생존성을 일정 수준

증대시켜왔고,²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BLM)의 개발도 꾸준히 진행시켜 오고 있다. 북한은 평화공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큰 변화가 없다면 기술향상 과시를 통해 핵무장 능력 강화와 협상력 향상이라는 2가지 목적을 지속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예측해 볼 수 있는 북한 행보는, **제재국면을 버틴 내년 공화국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핵보유국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형 ICBM 개발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화성-15형 시험발사는 대미 핵보복 능력 확보와 관련해 제한된 진전이기 때문에, 2018년 공화국 창건 70주년에 즈음해, 핵능력 신뢰성 향상을 위해 화성-15형의 탄두탑재능력을 확실히 입증하고자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이 화성-15형에 500kg 이상 중량의 탄두를 탑재하는 데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추정²¹⁾해 볼 때, 북한은 모라토리엄 선언 등을 통해 평화공세로 약 1년여의 시간을 벌면서, 그 기간 동안 ICBM 기술을 진전시켜 핵보유국 인정을 받아내고 대북제재 해제라는 통 큰 협상 목표 아래 ICBM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에게 최상이지만, 우리에게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과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능력을 강화시키되, 북한의 평화공세를 통한 국면 전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75일간 북한 도발이 없다는 점에 대한 과도한 의미 부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한의 화성-15형 시험발사를 통해 잘 드러난 것처럼, 북한의 도발 유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 유무 자체를 ‘긴장 vs. 평화’의 틀에 끼워 맞춰서 대응하다보면 북한의 위협이 또 다른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처럼 착시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우리의 인내 수준을 넘어서 위협지대 안에서 움직이는 위

협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도발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대응하기보다는, 북한 위협에 대해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체계와 능력을 구축시켜 나가는 일관성과 단호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설명했듯이, 북한이 의도적인 평화공세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자 할 경우, 우리는 이 국면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계산도 해놔야 한다.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북한의 시간별기식 대화에 휘말리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로 이어나가는 협상 진입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전략무기개발과 발전이 주권수호뿐만 아니라 ‘영토완정’에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으므로,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평창 올림픽 휴전 결의(11. 14)”를 일시적인 중국의 ‘쌍중단’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국제사회 요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핵능력 증대가 미국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지만,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을 보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공세적인 대남, 통일 정책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6년 7차 당대회 때 비평화적 방법의 통일을 언급한 데 이어 핵무력 완성 선언 시에는 핵능력이 영토완정에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군사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의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11월 29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긴급 현안 토론의 내용을 일부 반영해서 작성된 것임. [토론 참석자(가나다 순): 김두승, 김재홍, 김철우, 박대광, 이명철, 이상국, 이호령, 유영철, 탁성현]

- 1) 『로동신문』, (2017. 11.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 2) 미국은 북한의 화성-12형 2차 정각발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강경대응조치 언급에 대응하여 9월 23일 B-1B 2대와 F-35C를 NLL 이북 국제공역에서 비행시켰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점쳐지던 노동당 창건일 즈음에는 B-1B 편대를 군사 분계선을 따라 비행시켰고 서울아텍스에 B-1B, F-22, F-35 등 최첨단 전략자산을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2017. 11. 7-8) 전후에도 B-1B를 전개하고 항모 3척이 참가하는 해상훈련을 한반도 부근에서 진행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줄어든 시기에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3) 『연합뉴스』, (2017. 12. 1). “文대통령 ‘재진입·소형화 미입증’…트럼프 ‘첨단자산획득 지지(종합).’”
- 4) 이호령·조남훈. (2017. 10. 16).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발 추이와 대응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691호.
- 5) 『조선중앙통신』, (2017. 9. 18).
- 6) 마커스 실러(Markus Schiller) 박사는 화성-15형 엔진이 자체개발이 아닌 옛소련 부품을 조립해서 2개의 연소실을 통해 출력을 2배로 증대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KBS』, (2017. 12. 1). “독일 전문가 ‘화성-15형, 구소련 부품 조립 미사일 가능성.’”
- 7) 북한은 7월의 화성-14형 실험에서도, 이번 화성-15형 실험에서도 탄두의 재진입이 성공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박이 여전히 높다. 이상민. (2017. 7. 31). “북한의 화성 14형, 과연 ICBM인가?” 『주간국방논단』, 제1682호; 『국민일보』, (2017. 11. 29). “화성 15형,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는 의문.” 다만, 금번 실험에서 재진입능력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느냐는 문제와 상관없이 화성-15형의 외관적 변화(화성-14형보다 뭉툭해진 화성-15형의 탄두부)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상의 진전을 함의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연합뉴스 TV』, (2017. 12. 1). “미 전문가들 ‘화성-15형’ 사진…‘기술적 큰 진전.’”
- 8) 『로동신문』, (2017. 11.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 9) 『로동신문』, (2017. 10. 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 10) 2017년 11월 22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서 제재하기 위해 1명의 개인을 포함해 13개의 기업, 20척의 선박 등에 대한 제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뉴시스』, (2017. 11. 22). “美 대북 추가제재… 어떤 회사·개인 포함됐나.”
- 11) 『로동신문』, (2017. 11. 30).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 12) 위의 기사.
- 13) 이종구·손효종. (2017. 10. 23).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강국 주장 본격화와 함의.” 『주간국방논단』, 제1692호.
- 14) 『동아일보』, (2017. 12. 4). “美 ‘北과 전쟁 가능성 매일 커져.’”
- 15) 『연합뉴스』, (2017. 12. 6). “美국무부 ‘핵국가 협상은 없다…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비핵화.’”
- 16) 『조선일보』, (2017. 12. 2). “北, ‘핵보유국 인정해야 협상…’ 제재해도 100년 더 살아.”
- 17) Reuters. (2017. 9. 20). “Exclusive: From Russia with fuel-North Korean ships may be undermining sanctions.”
- 18) 『로동신문』, (2017. 11.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 19) 화성-15형의 탄두부 모습으로부터 북한이 다탄두 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연합뉴스』, (2017. 11. 30). “북 ‘화성-15’ 탄두부 뭉툭·뭉툭…다탄두 장착 염두에 둔 듯.”
- 20) 지난 7월 화성-14형의 시험발사 시 강도 내에서 화성-14형에 연료가 주입되는 모습이 『로동신문』에 공개된 바 있었던 것이다. 『로동신문』, (2017. 7. 5). “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주체조선의 위대한 승리.”
- 21) Michael Elleman. (2017. 11. 29). “North Korea’s Third ICBM Launch.” <http://www.38north.org/2017/11/melleman112917> (검색일: 2017. 12. 4).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최근호 및 차호 소개

제1697호(11월27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 권보람, 김기주 -

제1698호(12월4일): 아베 정권의 해양안보전략
- 김두승 -

제1699호(12월11일): 북한 화성-15형 시험발사의 함의와
전망
- 이호령, 이중구 -

차호

제1700호(12월18일): 병역의무이행자 지원 이슈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김규현, 홍숙지 -

저자 소개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leehr12@kida.re.kr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nile999@kida.re.kr